

- 2026년 1월 속회: 에바다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 366/통 485)

3. 시작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새해 첫번째 속회이니, 새해의 소망과 기도제목을 나눠도 좋을 것입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7:31-37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다룹니다. 이 지역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 받았던 곳으로,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 손가락을 귀에 넣고 혀에 침을 바르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는 환자가 듣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 어디를 고치려고 하는지를 환자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늘을 향한 "탄식"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깊은 궁금증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바다"는 사람으로 "열려라"는 뜻으로, 이것은 단지 신체적 기관(귀)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도 닫혀 있던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35:5-6 예언(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말을 못하던 혀”에 해당하는 헬라어 “모길랄로스”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 인역을 보면 이사야 35:6 에만 한번 쓰인 단어인데, 마가복음은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기적에만 열광하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완성될 메시아로서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방해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기적이 너무 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귀를 여시고 혀를 풀어주셨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에바다”는 단지 귀가 열려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닫혀 있던 마음과 영혼이 열리고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입니다.

7. 질문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소통이 잘 안되어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물리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닫힌 관계, 말은 주고받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에바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God is
with you.**